첨삭답안	연세대학교 2015 모의 사회	작성자	케미제이 님

[문항 1]

(가),(나),(다) 세 제시문은 모두 개인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임을 전제하고 행복추구와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다. 각 제시문들이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간의 관계를 바라보는 입장은 둘의 우열관계, 둘의 동반 여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나뉠 수 있다.

우열 관계의 측면에서,세 제시문은 정반합적인 논리관계를 보여준다.우선,제시문 (가)는 개인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보다 우선시 되며 중요하다는 입장이다.(가)를 보면 주종의 관계를 운명론적 관점에서 합리화 한다.노예가 되는 것을 불행한 일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도덕이라는 이름하에 주인의 행복과 지위를 위해 노예에게 종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요구한다.이에는 주인 즉,개인의 행복을 위해 타인의 행복을 침해 할 수 있다는 사고가 바탕된다.반면,제시문 (다)는 개인의 행복보다 타인의 행복을 모두 합친 사회전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공리의 원칙에 따르면 개인의 행복도 사회전체의 행복의 일부분이다.개인의 행복이 증가할 때 사회전체의 행복도 증가할 것이다.그러나 만약,개인의 행복 증가가 사회전체의 행복을 낮추면 그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된다.마지막으로 (나)는 (가)와 (다)의 중간적인 입장으로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은 동등하게 고려되야 한다는 평등주의적 인식을 보여준다.아내는 남편 자신을 위해 출가하며 자신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남편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또 남녀평등을 근거로 자신에게도 남편과 동등하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개인들이 행복을 추구할 때 자신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이 동반하는지에 대해 각 제시문은 상반된 견해를 보인다.(가)와 (나)의 개인의 행복추구는 타인의 행복과 동반되기 어렵다.(가)의 주인의 행복이 존재하기 위해선 노예라는 타인의 행복이 저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남편의 행복이 증대되기 위해선 아내의 희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이와 달리 (다)의 개인은 사회전체에 속하므로 대개 개인의 행복추구가 타인의 행복으로 이어져 동반된다고 할 수 있으나 예외의 상황도 존재한다.

[첨삭 포인트]

1. 논리 자체에 대해서 태클을 걸자면, 제시문 (다)의 공리주의는 행복의 총합이 크다면 옳은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이 때, 공동체 전체의 행복이 크다면 개인의 행복을 침해 받을 수 있으며 (가)와 같은 상황에서 노예는 불행하지만 노예의 불행으로 인해 사회 전체의 행복의 합이 커진다면 문제가 없죠. 따라서 제시문 (가)와 (다)를 위와 같은 논리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합니다.

2. 타당하지 못한 논리전개로 답안의 1/2 정도를 할애했습니다. 이는 오답으로 불합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B0

사전협의 없는 무단 도용,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환 논술 (煥 論述)

[문항 2]

제시문 (라) 실험의 표에서 표준편차가 작다는 것은 행복의 분포가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또한 행복도의 평균이 크다는 것은 행복을 수치화할 때 사회전체의 행복총량이 크다는 의미이다.이를 바탕으로 B국가군과 C국가군을 비교하면,C국가군은 B국가군보다 표준편차가 낮기때문에 행복분포의 평등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반면 B국가군은 C국가군보다 평균이 크기때문에 사회의 행복총량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나)와 (다)가 이상적이라고 답하는 국가군을 보면 서로 다른 답이 나올 것이다.행복 분포의 평등성을 중요시하는 (나)의 입장에서 볼 때 낮은 표준편차를 보이는 C국가군이 B국가군보다 평등하기 때문에 이상적이다.이러한 (나)의 선택에 대해 27개국의 평균인 2.07보다 낮은 수치인 1.85~2.05의 행복분포도를 보여주는 국가군을 골라 행복의 절대량을 등한시한다는 비판이 가능 할 것이다. 그러나 1. (나)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평균은 높지만 평등성이 떨어진다면 다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희생으로 인해 행복한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이는 모두의 행복을 동등하게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 소수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사회 전체 행복의 총량이 더 중요하다는 (다)의 입장에서 볼 때 비록 표준편차가 낮아 평등성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평균이 높은 B국가군이 더 이상적일 것이다.이러한 (다)의 선택에 대해 27개국의 평균 표준편차인 0.6보다 높은 수치의 표준편차를 보이는 B국가군을 골라 행복분포의 평등성을 등한시 한다는 비판이 가능 할 것이다.하지만 (다)의 공리의 원리에 따르면,행복 분포의 차이가 커 누군가가 불행하더라도 다수 즉,전체의 행복을 위해 이는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다.

2. 한편,이렇게 (나)와 (다)가 B,C국가군에 대해선 다른 견해를 보일지라도 A,D국가군에 대해선 동일한 견해를 보일 것이다.A국가군은 평균에 비해 행복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평등성도 결여되어 있다.(나)와 (다) 모두 A국가군을 가장 비이상적인 국가군으로 볼 것이다.왜냐하면 (나)와 (다)는 평등성과 높은 행복도를 모두 중시하기 때문이다.다만 두 가치의 가치가 충돌할 때 각 제시문이 바라보는 가치의 우열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뿐이다.그런데 A국가군은 두 가지 가치를 모두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마찬가지의 논리로 두 가지 가치를 모두 만족시키는 D국가군은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보여질 것이다. (1,187자)

[첨삭 포인트]

1. 나의 사례에서, 소수의 희생으로 다수가 행복해지는 상황이 발생했나요?

2. 의미 없는 문단입니다. 발문에서 A,D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만약 추가하더라도 한 문단을 차지할 정도로 서술한 것은 감점 요소입니다.

B0

총평	**전반적으로 비약적 요소가 존재합니다. 제시문에 '근거하는' 답안 서술이 요구됩니다.**

사전협의 없는 무단 도용,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환 논술 (煥 論述)